



우리나라엔 진짜 급행료가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8년간 다닌 회사가 경기 불황으로 휘청거렸다. 정리해고 소문이 사내에 돌았지만 설마 내가 정리해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었는데 내가 그 명단에 들고 말았다. ‘8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그래 잠시 쉬면서 다른 일을 찾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지만, 생각뿐이었다. 집에 있는 두 아이와 아내를 생각하니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업계의 다른 회사들도 사정이 안 좋기는 마찬가지여서 구직자를 구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다른 분야라도 도전해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고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반년 가까이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아내와 상의도 한 끝에 이렇게 구직이 힘들다면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도 있어서 일감을 얻어낼 수도 있고, 사업이 안정만 되면 월급쟁이 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아내도 걱정이 많았지만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었다.

창고 겸 사무실로 쓸 장소도 구했고,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내와 둘이서 내부에 페인트를 칠했다. 사무실 집기류를 중고로 구해서 들여놓으니 그럴싸한 사무실처럼 보였다. 물론 옆의 창고 공간이 더 컸지만 말이다. 지금은 작은 곳이지만 크게 키우자며

사무실 단장을 마치고 아내와 짜장면을 시켜먹으면서 다짐했다. 아직 어린 두 아이는 뭔지도 모르면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리라 다짐했다.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사업허가 신청서류도 구비했었다. 사업허가가 필요한 직종인지라 만에 하나라도 허가가 나지 않을까봐 해당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여러 정보들을 참조해서 서류도 꼼꼼히 준비했다. 마지막 서류 하나가 외국에서 도착해야하는 것이라서 도착할 때까지 접수를 미루고 있었다.

그 사이에 사무실 단장을 마치고 개업 고사를 지냈다. 이전 회사 동료들, 당시 거래처 직원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업이 번창하기를 기원하며 막걸리를 한 잔씩 했다. 아내와 둘이서 사무실에 페인트를 칠할 때는 적막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서 떠들썩하니 사무실이 가득차고 활기가 넘쳤다. 정말 회사가 번창해서 이 작은 사무실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더 큰 사무실로 옮길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사를 지내면서 아내와 나, 우리 부부는 간절히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했다.

그날 손님으로 오신 분들 중에 이전 회사 다닐 때 거래처 사장님의 계셨는데 일처리가 마음에 든다며 나를 신뢰해주셨던 분도 있었다. 그 분께서는 내 사업의 첫 고객이 되겠다며 다음 번 베트남 물량을 나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했다. 물량이 크고 적지 않은 금액인지라 나는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 일처리를 제대로 해서 계약날짜만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다.

며칠 후,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하고 이제 다른 서류를 들고 함께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허가를 받아야했다. 걱정은 사업자 허가 서류를 받는 기간이었다. 보통은 접수하고 한 달 정도가 걸리지만 때에 따라서는 두 달이 넘게도 걸린다는 것이 주변의

이야기였다. 미리 받아놓은 거래처의 일감이 있기 때문에 허가 서류가 한 달을 넘겨서 나오면 큰 낭패였다.

이런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다들 급행료를 좀 쓰라고 했다. 회사를 8년 가까이 다녔으니 급행료의 의미를 모르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이 오히려 통하지 않는다고 들었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은근슬쩍 급행료를 줘어주는 것이 일을 빨리, 그리고 약간의 미비한 서류가 있더라도 눈감아 줄 수도 있기에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 사업 초기의 중요한 거래처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번만 눈 딱 감고 급행료를 지불 해보는 거야.’

서류를 접수하면서 담당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백화점에 들러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했다. 결혼해서 아내에게도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준 적이 없는데, 이런 돈을 써야하나 싶었다. 주변에서 다들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상품권을 지갑에 넣고 다시 구청으로 갔다. 어제 서류를 접수한 내가 다시 찾아오자 담당자는 무슨 일이냐고 내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오늘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해당 주무관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다.

“저희는 식사 대접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거나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기다려주세요.”

냉정한 주무관의 반응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당혹스러워서 대충 인사를 하고 구청을 빠져 나왔다. 주차장에서 한참 앉아서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내가 너무 어설프게 식사대접을 이야기한 것인가? 주무관이 일부러 서류를 보류시켜서 허가 안내주면 어쩌지? 주무관이 퇴근할 때 기다렸다가 아까는 오해였다고 해야 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 매일매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괜히 어설프게 행동했다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맙아먹는 것은 아닌지, 아내에게는 물론 주변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만 태웠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자책하기도 했다.

애를 태우던 3주가 지나고 날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다. 사업자 허가서가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문자였다. 뛸 듯이 기쁘면서도 어리둥절했다. 보통 한 달은 걸린다는데 어떻게 3주 만에 나온 것인지, 그리고 주무관에게 그런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진행된 것인지 말이다.

문자를 받고 바로 서류를 찾으러 가서 주무관을 찾았다. 서류를 건네주면서 주무관이 차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하더니 내가 산다는데도 굳이 자신이 산다면서 구청 내 카페테리아에서 내게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저녁식사나 하자는 말을 하면서 내 눈빛이 참 많이 떨렸다고 한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망설이는 그런 눈처럼. 저녁식사 초대를 단박에 거절한 그 주무관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신청한 서류를 오히려 더욱 꼼꼼히 검토했다고 한다. 모든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했고, 신청서도 잘 써서 놀랐단다.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될 일인데 왜 그랬는지 궁금해 했다.

“저… 그게 주변에서 하도 급행료 이야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엔 필요하다고.”

“구비 서류 완벽히 갖추시고, 신청서 오류 없이 써주시면 그게 급행료예요. 담당공무원을 믿고, 제출해야 할 서류만 완벽히 제출해주시면 되요. 저희 주무관들이 처리하는 일이 많다보니 서류가 미비한 사항은 보충을 해달라고 연락드리고, 그러다보면 일자가 밀리는 일이 많거든요. 담당 공무원을 믿으시고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만 철저히 준비해주시면 그게 진짜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급행료예요. 앞으로도 이번처럼 서류만 완벽히 준비하시면 처리 업무가 늦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주무관 앞에서 나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민원 신청자가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진짜 급행료라는 말에 진심으로 신뢰가 갔다. 나름대로 회사생활도 8년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

“나중에 인허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주세요. 그럼 저는 일이
밀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무관에게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허가 서류가 나왔다고
알렸다. 한 달은 걸린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아내가 물었는데 나는 ‘진짜
급행료’를 썼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3주간 내 주머니에 들어있던 백화점 상품권을 아내에게 선물했다. 아내는
놀라면서 이게 뭐냐고 했고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냐고 아내는 나를 나무랐다.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아내에게
다짐했다.

그 뒤로 나는 대한민국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관공서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인허가 업무가 필요할 때, 내가 서류를 잘 준비하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면 친절히 주무관들이 대답해 주었고, 그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서류 처리가 늦어지거나 미뤄질 일이 없다.

진짜 급행료는 뒷주머니로 전해지는 돈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서류다.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업체에게 뒷돈을 먹이고 일감을 따내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었다. 확실히 맑은 일만 잘 처리하면 그런 뒷돈과 접대가 없이도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하고 일을 늘릴 수 있었다. 처음에 회사를 열면 주변에 접대도 하고 해야지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틀린 것이었다.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처리하면, 그것이 바로 사업을 키우는 지름길이고 급행료인
것이다.

한 주무관이 나에게 준 진짜 급행료의 교훈은 평생 나와 함께할 것이다. **청렴서상**